

잡귀, 귀신 물러가라

임 락 경(목사, 강원 화천 시골교회)

이상한 사람

우리 이웃, 50대 남자의 이야기다. 시골에 태어나 열심히 살려고 해도 농촌생활에 별 수입이 없어 어렵게 산다. 도중에 도시에 가면 좀 나오려나 하고 10여 년 간 서울생활도 해보았으나 별로 성공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지금은 열심히 농사짓고 살아도 연말이면 농협 돈 이자 갚기도 힘들게 생활한다.

하루는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 마을사람들이 관광차 타고 갔다. 식사 후에 결혼식장 앞 노점에서 커피 파는 노인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커피를 사주는 것이었다. 내가 보기에 몇 만원 어치 사는 것이다. 커피 얻어 마시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본다. 그이 형편에 과소비하는 것이다. 보는 이마다 수근 거린다. 필요없이 기분 내느라고 돈 많이 쓴다고 나도 하마터면 그렇게 생각할 뻔했다.

전날 나는 밤늦게 그이 이야기를 들었다. 자기가 서울 살 적에 길가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했다는 것이다. 본인이 노점 장사를 했기 때문에 노점 상인을 도와 주느라 커피를 지나치게 샀던 것이다. 그이가 언젠가 고구마 장사할 적에 어떤 신사 한

사람이 고구마 2천 원어치를 사고 5천 원짜리 돈을 주기에 3천 원 내주니, “그냥 두라”고 하며 가기에 화가 나서 쫓아가 욕을 하며 “당신 같은 사람에게 동정 받기 싫다”고 돈을 던져 주었다. 그러면 다시 고구마를 3천 원어치 가져가면 되겠느냐고 하기에 그렇다면 괜찮다고 고구마 3천 원어치 싸주니 받아 가지고 가면서 사실은 내가 군고구마 장사했었노라고 죄송하다고 떠나기에 미안해서 쫓아가 다시 사과했다고 한다. 우리 이웃 사람이 커피 살 때 모두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다.

약수터 파란치마 귀신

1974년경으로 생각된다. 이웃마을 17세 된 처녀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 날뛰고 발작을 한다. 울고 무엇인가 쫓기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온 교인들이 3일간 밤낮 불들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귀신 나가라고 해도 별효과가 없다. 며칠 후 그 처녀 더러 조용히 물었다. “왜 무슨 귀신이 있어서 그렇게 날뛰느냐?”고 했더니 약수터에 파란치마 입은 귀신이 찾아와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그럼 내 눈에는 안보이고 왜 너의 눈에만 보이니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이상하다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고 하기에 그것은 “네가 어릴 적에 동네 어른들에게 놀림받느라고 약수터에 가면 파란치마 입은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컸기에, 그 지어낸 전설을 사실로 알고 너의 머리 속에 항상 잠재해 있다가 네가 몸이 약해지니 현실같이 나타난 것이다. 나는 같이 있어도 파란치마 귀신은 없고 우리 고향 공중변소에 달걀귀신과 멍석귀신 뿐이 없더라.” 이말 한마디에 그 처녀는 정신 온전해지고 지금은 시집가서 40세 넘도록 정신이상 없이 잘 살고 있다.

잘못된 입신과 정신이상

1972년 진달래교회에서 살 적의 이야기다. 일찍 저녁 먹고 일이 피곤해서 잠깐 자느라고 누워 있는데 여자들 방에서 한사

람이 저녁 밥 먹다 죽었다고 밥상을 치우고 장의찬송을 하는 것이다. 그 무렵 한참 우리나라 교계에 입신과 방언이 유행하던 때라 내 짐작에 ‘입신했구나’ 하고 그냥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다니 옆방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우르르 뛰어와 깨우는 것이다. 나는 피곤해서 “잠 좀 자게 그만 가라.”고 하니 “사람이 죽었는데도 잠을 자느냐?”고 온 집안이 날뛰고 요란하다. 내가 하도 안 일어나니 80세 넘은 노인이 찾아오셔서 좀 와보라는 것이다. 그 할머니를 내방에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때 유행하던 입신이 2시간이면 깨어나기에 시계를 보면서 2시간이 되었기에 “할머니 건넌방에 가보셔요.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가실 필요도 없어요.” 하고 나니 건넌방에서 역시 죽은 사람 살아났다고 기뻐하는 것이다. 70년대 초반 그 자주 하던 입신을 요즈음은 안 한다. 입신했 적마다 무슨 천국을 다 갔다가 오는 것이다.

그 천국 갔다왔다는 이더러 제대로 돌아온 뒤에 조용히 물어보았다. 그때 “어디 가서 누구 만났느냐?”고. 그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자기는 아무리 좁은 길을 가려해도 넓은 길에서 마귀가 끌어가고 좁은 길 쪽에서 천사가 끌고가 천사와 마귀와 중간에서 싸우다가 깨어났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를 환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 환상은 비유라는 설명을 확실히 해주었다. 그리고 좁은 길은 오늘 저녁 먹은 그릇 설거지하는 것이고, 넓은 길은 다른 사람이 설거지하는데 같은 시간에 찬송가 펴놓고 예배드리는 것이라 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좁은 길이고 이 일을 다른 구실삼아 피해가는 것이 넓은 길이다.

그 좁은 길의 천사의 모습을 물어보니 날개 달리고 노랑머리에 그것은 성탄카드에 나온 그림이라고 일러 주었고, 마귀의 모습을 이야기해보라니까 빨이 있고 키가 크고 쇠뿔치 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릴 적에 만화책에 나오는 도깨비 그림이다. 마귀가 그렇게 생겼으면 누가 마귀를 쫓아다니겠느냐.

마귀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들이 되는 것이다. 누구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요 계명을 어기도록 유도하는 이들이 그때그때 마귀가 되는 것이다. 그 천국 갔다왔다는 처녀는 다시는 입신도 허깨비 천사도 만나지 않게 되었다.

위에서 말한 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한 여인은 귀신들린 사람이고 또 한 여인은 입신한 사람이다. 이 글을 쓰다가 『정신분열 중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을 읽는데 “무슨 말을 하던지 글을 쓸 때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사람은 정신분열환자라고 의심해야 된답니다.” 나는 글 쓸 적마다 앞뒤가 맞지 않으니 그냥 정신분열증 환자의 글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 주어야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다. 전자는 환경적 요인이고, 그 다음 여인은 상상을 현실화한 것이고, 마지막 여인은 역시 상상을 현실화 한 것이지만 종교적인 요인이 달랐던 것뿐이다.

70년대 그 흔하던 입신과 방언, 그때는 마치 방언할 줄 모르면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부흥집회마다 떠들었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받지 않은 잘못된 거짓신자처럼 여겨 왔었다. 그때는 다 알면서도 모든 기독교가 같이 떠들어대니 그 속에서 견디어 내기 힘들어 어느 목사 한 사람도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천당, 천당 사람

입신할 때 갔던 곳이 주로 천국에서 예수 만나고 베드로 만나고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다. 천국의 모습은 아름다운 정원에 꽃밭이 있고 옛날 천국은 큰 기와 집이었는데 요즘은 양옥집이 많다. 주위는 옛날에는 꽃밭이었으나 요즘은 정원으로 바뀌었다. 쓰고있는 면류관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다. 옛날에 갔다왔다는 천국은 먹을 음식이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먹을 음식이 없다. 찬송소리도 지

상에서 불렀던 찬송소리 그대로이고, 악기는 외국에서 쓰는 악기만 있고 우리나라 악기 중에는 겨우 거문고 정도만 있다 한다. 건축자재는 모두가 금, 진주 등 보석이고 유리를 많이 썼고 길과 대문도 유리나 금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신천신지에는 처음에 지상에 있었던 것은 없다고 했으니 모두가 잘못 보고 온 것 같다. 내 생각은 입신할 적에 만나보고 왔던 성인성녀들이 약속터에 파란치마 입을 귀신과 구별이 가지 않는 것이다. 또 궁금한 것은 천국 가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만나고 오는 것이다. 아니면 자가 나라 사람들 중 교회사에 나온 사람들만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온 것들이고 주로 목사님들만 만나게 된 것이다. 천국에서도 지역이 나누어져서 한옥집도 있고 요즈음은 양옥도 있고 한국사람들끼리 따로 살며 가족들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것 같다. 그 다음 이상한 것은 불교인들은 가끔 입신도 하는데 그분들의 입신 때는 부처님 만나고 관세음보살님 만나는 것이다.

꿈 이야기서부터

사람들이 잠을 자면 꿈을 꾸다. 짐승도 꿈을 꾸는 모양이다. 자다가 꿈틀거리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다. 사람들은 잠꼬대를 하는데 깨어나서 꿈꾸었느냐고 물어보면 꿈 안 꾸었다고 한다. 꿈이란 잠을 자면 꾸기 시작하는데 그 동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곳, 상상했던 곳, 스쳐 지나갔으나 기억하지 못한 것들만 나오기 마련이다. 나는 군에 다녀왔기에 지금도 군에 간 꿈을 가끔 꾸다. 어느 친구는 고아원에서 컸는데 지금도 고아원 꿈을 꾸다고 한다. 나는 고아원 생활을 안 했기에 고아원 생활 꿈은 꾸지 않는다.

꿈꾸는 시간은 잠깐이다. 꿈에 30리 길을 걸었다 해서 실제 꿈꾸는 시간이 3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고 몇 초간인지도 모른다. 언젠가 라디오 연속극이 시작되는 것을 들으며 잠이 들었

는데 꿈에 많은 곳을 다녀왔었다. 깨어보니 아직 연속극이 끝나지 않았다. 역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꿈에 예수 만나고 스님들은 부처 만난다.

꿈이 맞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꿈은 무시하는 편이 낫다. 실제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꿈에 호랑이새끼 2마리가 집에 들어 왔는데 아들 쌍둥이 낳았다 해서 그 꿈이 맞았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호랑이 새끼와 아이들 쌍둥이에다 갖다가 맞추는 것이다. 그런 것 말고 정확히 맞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릴 적 꿈에 큰 집 멀쩡한 조카가 죽었다. 며칠 후 실제 죽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맞는다 해도 나는 무시한다. 한 달에 한번 맞는 꿈을 꾸었다해서 그 꿈은 기억하고 나머지 29번은 틀려서 무시한 것 가지고 맞는다고 한다. 한 달 동안 매일 꿈꾸면서 맞는 꿈 15번을 꺾도 맞는 것이 아니다. 15번은 틀렸기 때문이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 지 딸인 지 나는 50%는 맞춘다. 무조건 아들이라고 하면 50% 이상 맞기 때문이다.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면 꿈꾸었다고 한다. 꿈을 꾸노라면 희로애락애오욕같이 스치면서 꿈을 꾸다가 마지막에 깨어날 때 기억나는 것만 가지고 그때부터 기억을 더듬어 기억나는 부분이 꿈 이야기다. 나는 교통사고 나는 꿈꾸고도 그 날 아침 운전하고 떠난다. 그전에 운전 잘 할 적에 누가 나를 깨웠으면 단꿈 꿀 때 깨었을 것인데 깨우지 않거나 밖에서 시끄러운 충격이 없었기에 꿈에 충격받아 깨었을 것이다. 실제 운전하면서 다녀도 그 날 사고 안 난다. 스스로 깨었을 때 꿈은 주로 불길한 꿈이고, 누가 깨워서 일어나면 단꿈을 꾸는데 왜 깨우느냐고 한다. 매일같이 좋은 꿈꾸려면 아침마다 지켜보다가 자다가 즐거운 표정 지을 때 깨워주면 날마다 좋은 꿈 꿀 수 있다.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면 아주 즐거운 꿈이 아니면 거의가 불길한 꿈이다. 꿈에 충격을 크게 받으면 스스로 잠이 깨기 마련이다.

꽤지꿈을 꾸었다해서 재수 좋은 것이 아니다. 일본사람들은 후지산 꿈만 꾸면 그 날 재수 좋다고 복권 산다고 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돼지꿈만 꾸면 복권사고 야단인데 설령 돼지꿈을 꾸었다고 복권 살 필요없다. 복권 안 사도 다른 방법으로 재수 좋아 이익이 오기 마련이다. 후자산 꿈꾸려면 후자산 바라보고 집 짓고 살면 되고, 돼지꿈 꾸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양돈업을 하면 된다. 양돈장 경영한 사람들 날마다 돼지새끼 낳는 꿈꾼다. 그래도 돼지과동 나면 양돈농가 망하거나 빚에 헤어나지 못한다.

저승사자

임종 때 사경을 헤매면 깨어나서 약간의 죽음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실제 3일만에 깨어나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때도 공통점이 있다. 자기가 생각한 곳만 다녀온다. 옛날 양반들은 평소에 가마만 타고 다녔기에 임종이 가까워지면 저승에서 가마 가지고 나를 모시러 왔다고 작별인사하고 떠나지만, 종들은 가마채만 메고 다녔고 툼툼이 포졸들에게 끌려가서 곤장 맞던 기억만 나니, 임종 때 저승사자가 까만 도포입고 데리러 왔다고 하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며 임종을 맞는다. 보통 포졸들은 혼자 다니지 않는다. 무슨 보복 당할까 봐 보통 2-3명이 다닌다. 나도 70년대 모 수사기관에서 붙잡으러 올 때 담당수사관이 3명이었다. 임종 후에 사자밥을 해놓는데 우선 밥을 다시 지어 3접시 상에 놓고 집신 3꺄레하고 동전 3개를 같이 놓고 잘 모시고 가주시라는 제사지낸 것이 첫 번째 장례예절이다.

그렇다면 저승에서 염라대왕이 양반은 가마로 모셔가고 상민은 저승사자 시켜 방망이들고 끌여가는 차별 임종을 치르겠는가.

염라국의 아시아 지역 종교분포

또 한가지는 기독교인들은 임종 때 주로 예수님이 맞이한다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며 기쁨 중에 임종을 맞는가 하면,

천주교인들은 성모님께서 데리러 온다고 성모송을 외우다가 임종을 맞기도 하고, 불교도들은 역시 부처님이 임종을 맞이한다고 열불하다가 세상 떠난다.

이렇게하면 열라국에서 열라대왕이 종교 따라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는 예수 보내고, 천주교인이 죽을 때는 성모님 보내고, 불교인이 죽을 때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내서 영혼 데려오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살았을 때 가졌던 생각이 잠이 깊어지면 꿈이 깊어진 것처럼 임종이 가까우니 그대로 현실같이 보인 것뿐이다.

열라국의 교통수단 변천사

옛날에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이야기를 모아보면 가마 타고 어디를 멀리 가다가 가마채가 부러져 충격받아 깨어나 보니 식구들이 울고 있더라, 나룻배를 타고 가다 배가 파선되어 깨어났던가, 외나무다리가 부러져 깨어났다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요즈음 수술 후 깨어나서 하는 이야기나 선부른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들 이야기는 차 타고 가다가 차가 충돌해서 깨어났다, 비행기 타고 가다 추락해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들이다.

그렇다면 열라국에서 옛날에는 열라국의 국가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임종 맞은 사람 직접 끌어오고 그 중 양반들은 가마로 데려오다가, 요즈음은 열라국에서도 박정희 도움을 받아 새마을운동을 해서 열라대왕도 차도 사고 고속버스도 사고 승용차도 사고 비행기도 사서 평소 비행기 자주 탄 사람은 비행기로 모셔오고 나머지는 고속버스, 승용차, 택시로 영혼을 불러들이는 것인가 보다.

이 모두가 자가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몸이 약해지거나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거나 어릴 때 귀신이야기를 잘못 들어 없는 귀신 입력시켜, 몸이 약해지고 정신 잘못 차려 자기가 창조한 귀신에게 끌려 다니다가 헤어날 수 없고 정신이상 되기도 하고 귀신들렸다고 하기도 한다.

귀신도 공통점이 있다

주로 흰옷 입은 여인들이고 머리가 긴 여인들이다. 왜 남자 귀신은 안 나타나는지, 그리고 전기불 하나 못이긴 귀신들이고, 뭐 몸 약한 사람들 정신 약한 사람들에게만 달려드는 힘없는 귀신들인 지 모르겠다. 귀신은 가령 있다해도 아무에게나 귀찮게 하지 않는다. 무슨 원한이 맺혀서 보복하려고 나타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나타난 것이지 바르게만 살면 그리고 바른 신앙만 가지면 귀신 무서울 것 없다. 귀신은 도망가면은 쫓아오고 찾아가 확인하려면 없어지는 것이다.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귀신이고, 없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귀신이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창조한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지 말고, 자기가 멋대로 창조한 열라국 사자에게 끌려가지 말고, 자기가 생각했던 열라국 사자는 예수이든 마리아이든 부처이든 따라가 임종을 맞지 말자. 열라국 가서 자기가 창조한 허깨비 예수에게는 심판도 받지 말고 지옥도 가지 말고 참 하나님만을 믿고 썩어 없어질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진주 따위가 없는 천국, 지상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것으로만 꾸며진 천국,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배부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사랑도 미움도 없고 화도 복도 희도 로도 애도 낙도 없는 곳, 생도 노도 병도 사도 없는 곳, 내가 머리 속으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그곳은 나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는 곳이다. 마태복음 26장 30-46절을 보면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고 있던 원편 열소 분류는 영벌에 갔고, 어느 때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았느냐고 의심했던 오른편 의인들은 영생에 갔던 심판의 기준이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 좀 이해 못 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억지로 너그러운 이해하며 살아가고, 어린 아이 달래느라 이불 속에서 이야기하던 호랑이, 도깨비도 변소간의 달걀귀신

도 약수터 파란치마 귀신도 명석귀신도 다 물러가고, 무당이
 돈 벌려고 불러들인 목매달아 죽은 귀신, 물에 빠져 죽은 귀
 신, 벼락맞아 죽은 귀신, 동방에 청제살신, 남방에 흑제살신,
 서방에 홍제살신, 북방에 백제살신, 나무중앙 황제살신 나무귀
 신 조왕귀신 장독귀신 칩간귀신 동자귀신 몽달귀신, 없는 귀신
 만들지 말고 썩 물러가고.....

잘못된 방언, 입신 들어가 헛것보고 진땀 빼지 말고, 이런
 못된 글을 『농촌과 목회』 책에 있다고 읽고 나서 성경상 맞느냐
 틀리느냐, 교리상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글을 글이라고
 실었느냐, 이단이나 사이비나 따지다가 정신 뺏기고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무엇이 진실하며 무엇이 거룩하며 어느 것이
 사랑인지 분별하도록 하자. 20세기 잘못된 신앙귀신 썩 물러가
 고, 21세기에는 지성인다운 신앙 찾아 과학과 철학이 없는 무
 속신앙도 말고, 철학과 종교관만 있는 잘못된 종교지도자처럼
 도 말고, 과학과 철학과 종교가 확실한 신앙인이어야 하며 믿
 음만 있고 소망이 없는 신앙, 믿음과 소망만 있는 신앙을 멀리
 하고 믿음 소망 없이 사랑만 강조한 신앙에서 떠나 신망애(信
 望愛)를 겸한 신앙을 가져야 잡귀잡신을 물리칠 수 있다.